

로조번역의 특성과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

교수 박사 리원남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번역기량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번역을 많이 해보면서 여러가지 묘리와 수법을 체득하여야 하며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 잘 번역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김정일전집》제10권 486페이지)

번역실천실기능력을 높이는것은 외국어를 실천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외국어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번역의 묘리와 수법들을 체득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 번역을 능숙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도록 하여야 한다.

번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원문의 의미를 재생하는데 있으며 번역에서 목표로 하는 등가성도 기본은 의미적등가성을 말하는것이다. 번역의 등가성을 실현하는데서는 번역문에서 원문의 통신적의미를 최대로 살리면서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는것도 중요한 방도적문제 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들사이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인것으로 하여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이 결코 쉽지 않다.

지난 시기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번역의 특성과 번역과정, 번역의 유형, 번역원칙과 방법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명되였다.

번역문제는 언어가 생겨나서부터 제기되어온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연구는 세기를 넘어오면서 전통번역리론으로부터 현대번역리론으로 심화발전되어왔다.

현대번역리론에서는 번역연구를 단어와 문장의 대비로부터 본문분석에로, 언어적측면으로부터 어용적측면으로, 본문측면으로부터 문화적측면으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중국어번역학연구》(리혁철, 2017), 《Введение в прикладную лингвистику》(М., 2003),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Roger T. Bell, 1991), 《Communication Across Cultures: Translation Theory and Contrastive Text Linguistics》(Basil Hatim, 1997))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된것처럼 번역에서 중요한것은 원문이 담고있는 전일적인 사상을 구체적인 언어환경속에서 파악하고 번역에서 그것을 살리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원문에 쓰인 단어들의 사전적의미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맥속에서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번역이 한 언어의 단어를 다른 언어의 단어로 기계적으로 바꾸는것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번역에서는 응집성을 가진 원문의 전체적인 사상을 필자의 의도에 맞게 전달해야 하므로 단어대응식의 기계적인 작업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문장을 재조직해야 한다. 단어대응식의 기계적인 번역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반드시 번역문의 문장들을 재조직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그것은 문장구성방식이 철저

히 민족적특성을 가지기때문이다. 번역은 단어선택과 문장완성, 본문완성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단어는 문장속에서 선택되게 되며 본문은 문장이 있어야 완성되게 된다. 그런데 번역문에서 문장은 본문의 응집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구성되어야 하므로 원문의 문장구조를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번역에서 원문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원문의 어휘나 문법구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번역문의 응집성이 파괴될수 있다. 그러므로 원문의 어휘적 및 문법구조적구속에서 벗어나 번역어의 특성에 맞게 문장을 재조직하는 문제가 제기되는것이다.

번역의 기본단위는 어디까지나 본문이며 개별적인 문장번역의 정확성도 본문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본문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언어교체의 단위로서 응집력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으며 본문의 응집성은 어휘문법적연관성과 함께 논리의미적통일성에 의해 실현되는것이다.

로어교육에서는 번역에서 개별적인 단어나 문장구조에 매달리는 편향을 극복하고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여 본문의 응집성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높은 번역능력을 키워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로어교육에서는 아직도 번역을 본문단위로 진행하면서 번역문의 응집성을 실현하는데로 확고히 전환하지 못하고있다.

로조번역에서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는데서는 두 언어의 차이로 하여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조선어와 로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차이나는것이다.

로어와 조선어는 계통적으로나 류형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이다. 그런것만큼 두 언어에서 문장구성방식이 같을수 없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형성하고 표현하며 남에게 전달하는 수단인 언어의 기본단위는 일정한 말소리와 의미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남에게 알리려고 할 때 몇몇 단어들을 선택해서 이리저리 연결시킨다. 이처럼 단어를 리용해서 어떤 생각을 알리는 언어행위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문장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과정이란 결국 단어들로 문장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는것은 언어마다 같지 않다. 이것은 단어들이 문장속에서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들을 어떤 수단으로 표현하는가, 단어들의 배열순서, 즉 어순을 어떻게 정하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실례로 조선어단어들에서는 문법적의미의 표현수단이 토이지만 로어에서는 굴절어미가 문법적의미의 표현수단으로 된다. 그리고 조선어문장은 일반적으로 주어-보어-상황어-술어의 어순을 가지지만 로어는 주어-술어-보어-상황어의 어순을 가진다. 따라서 조선어에서는 주어가 앞에 놓이고 술어가 맨뒤에 놓이며 보어와 상황어는 술어의 앞에 놓이고 규정어는 언제나 피규정어의 앞에만 놓인다. 그러나 로어에서는 규정어가 피규정어의 앞에 놓이기도 하고 뒤에 놓이기도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로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조선어의 토를 잘 선택하며 정확한 어순에 따라 단어들을 배열하는것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것이다. 그렇게 해야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여 로어본문의 사상을 손색없이 전달할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어와 로어에서 단어들이 표현하는 개념이 차이나는 경우들이 있는것이다.

일정한 단어로 어떤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것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의 하나이다. 매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사물현상을 명명하는 방식이 꼭 같을수 없는것이다.

실례로 조선어에서는 《사람의 팔목끝에 달린 무엇을 만지거나 잡거나 하는 부분》을 《손》이라고 하고 《사람의 어깨와 손사이의 부분》을 《팔》이라고 하지만 로어에서는 손과 팔을 모두 рука라고 한다. 조선어에서 각각 따로 명명하고있는 《발》과 《다리》도 로어에서는 нога라는 한 단어로 나타내고있다. 한편 조선어에서는 《푸르다》는 단어로 녹색도 가리키고 청색도 가리킬수 있지만 로어에서는 녹색을 зелёный로, 청색을 голубой나 синий로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어에서 《줄이 길다》, 《대단히 고맙다》라고 하는것을 로어에서는 《Очередь большая》,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라고 하는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하여 번역에서는 모국어간섭현상이 작용할수 있으며 그 결과에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어와 로어에서 리용되는 어휘적 및 문법적수단들이 같지 않은것이다.

실례로 두 언어의 품사체계만 놓고보아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물론 자립품사들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문제는 로어에는 조선어에는 없는 조사나 전치사와 같은 보조품사들이 있으며 또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되고있다는것이다. 또한 로어에는 조선어에 없는 동사의 태와 부동사, 형동사 등 적지 않은 문법적수단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을 조선어의 어떤 수단들로 대응시킬것인가 하는것도 중요한 번역수법으로 된다.

그러므로 번역에서 조선어에 없는 이러한 어휘적 및 문법적수단들을 잘 처리하는것도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는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것이다.

론문에서는 로조번역에서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여 번역문의 응집성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리적문제들과 번역실천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명하려고 한다.

2. 본론

로조번역에서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는데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로어문장들의 통신적성분화를 잘 고려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어순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본문속에서 문장의 어순은 절대로 자의적이 아니며 본문전반의 논리의미적연계를 보장하는데 철저히 복종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통신적의도에 따라 문장들을 꾸미며 어순은 앞뒤문장들과의 관계에서 논리의미적연계를 가장 정확히 지어줄수 있도록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에서는 문장의 어순을 보고 본문작성자의 통신적의도를 파악하며 그에 맞게 번역문처리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번역문의 어순을 로어문장의 통신적성분화에 맞게 배열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와 같은 개별적인 문장성분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최종적으로는 통신적성분화의 성분들인 주제부와 설명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장의 통신적성분화는 문장에서 단어들이 맺는 문법적관계에 기초한 문법적성분화와는 달리 문장이 표현하는 통신적의미에 기초한 기능적인 문장구획법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통신적목적에 따라 문장들에서 통신적의미를 정확히 표현할수 있는 문장구조를 선택하여 리용하게 되므로 본문속의 문장들에서 그 구성요소들의 위치는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각이하게 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문법적성분화에 따라 문장의 주어와 술어 등 문장성분들이나 찾아서 그것을 해당한 문장성분들로 번역하는 방법으로는 문장의 통신적의미, 나아가서 원문작성자의 통신적의도를 제대로 전달할수 없다.

예: А воз реаль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взвалит на себя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 назначенный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МВД.

이 문장을 번역할 때 문법적성분화에 따르는 문장분석에만 습관된 사람들은 주어와 술어와 같은 문장성분들을 찾고는 주어로부터 시작하여 《그런데 제1부상으로 임명된 올라지미르 와쉴리에브가 실제적인 사업부담을 지게 될것이다.》라고 번역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번역문은 제1부상으로 임명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밝히는것을 통신적목적으로 하는 문장으로 된다. 이것은 로어원문의 문장과 통신적목적이 완전히 차이나는것이다.

로어문장의 통신적목적은 실제적인 사업부담을 질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것이다. 이것은 앞부분에 주제부인 보어와 술어(воз реаль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взвалит на себя)를 놓고 뒤부분에 설명부인 주어(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 назначенный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를 놓은것을 보면 알수 있다.

로어원문에서 주어가 문장의 마감위치를 차지하면서 설명부로 된것은 본문속에서 표현해야 할 통신적의미에 따른것이다. 본문에서 이 문장의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다.

Минимум год новый министр будет вживаться в должность, осваивать служебные азы ...

Впрочем, понятно: Грызлов будет лишь политическим комиссаром.

(적어도 1년동안은 새로 임명된 상이 자기 직무에 익숙하면서 직무상의 초보지식을 배우게 될것이다 ...

그런즉 명백한것은 그리즐로브가 정치적전권위원회 불과할것이라는것이다.)

앞문장들에서 서술된 내용을 보면 내무군출신이 아닌 사람이 새로 내무상으로 임명된 조건에서 그가 이 분야의 실무능력이 없으므로 내무성사업을 정치적으로밖에 지도할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다음 문장에서는 실제적인 사업부담을 질 사람은 상이 아니라 제1부상이라는것을 밝히는것이 통신적목적으로 되며 그에 맞게 문장의 어순을 조직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통신적의미를 고려하여 이 문장을 번역한다면 《실제적인 사업부담은 제1부상으로 임명된 올라지미르 와쉴리에브가 지게 될것이다.》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로어문장의 술어에 대한 번역처리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로어와 조선어문장의 통신적성분화는 일반적으로 주제부가 앞에 오고 설명부가 뒤에 오는 방식으로 공통성을 가지는 반면에 문법적성분화에서 술어의 위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로어문장에서는 술어의 위치가 자유롭기때문에 통신적목적에 따라 문장의 앞에도 뒤

에도 그리고 중간에도 놓일수 있지만 조선어에서 술어는 언제나 문장의 마지막에 놓이면서 위치가 고정되어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로어문장에서 술어라고 하여 우리 말에서도 반드시 술어로만 번역한다면 그것을 문장의 마지막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로어문장에서 술어가 주제부의 구성에 들어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번역이 가장 적중한 번역, 가장 등가적인 번역이라고 할수 없다. 문장의 통신적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가장 등가적인 번역을 하자면 로어문장의 주제부와 설명부를 조선어번역에서도 주제부와 설명부로 대응시켜 처리해야 한다.

우에서 든 례문에서 술어는 보어와 함께 주제부를 이루고있다. 로어문장의 주제부구성에 들어가있는 술어를 우리 말에서도 주제부에 포함시켜 번역처리하자면 그것을 우리 말의 주어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의 례문을 《실제적인 사업부담을 지게 될 사람은 제1부상으로 임명된 올라지미르 와쉴리에브이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로어문장의 통신적의미를 완전히 살린 번역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의 문장들을 번역한다면 통신적측면에서 번역의 등가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Такой же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и начальник пресс-службы МВД Дагестана Абдул Мусаев.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는것은 또한 다게스탄내무성 보도국장 아브둘 무싸예브이다.)

Об этом, как уже о почти свершившемся факте, говорит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втоВАЗа» Владимир Каданников.

(이에 대하여 이미 거의나 마무리된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브또바즈》사장리 사회 위원장 올라지미르 까단니꼬브이다.)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разрешать «пивной спор» будут депутаты.

(십중팔구 《맥주분쟁》을 해결할 사람들은 대의원들이다.)

От фальсифицированной водки страдает прежде всего потребитель.

(위조술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이다.)

로어문장의 통신적성분화를 고려하여 번역문의 론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자면 다음으로 부동사구와 종속복합문의 진술부분들에 대한 번역을 잘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문장성분과 마찬가지로 부동사구와 종속복합문의 진술부분들도 문장의 통신적목적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로어문장에서 부동사구는 술어의 앞에 놓일수도 있고 뒤에 놓일수도 있으며 번역에서는 부동사구를 먼저 번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사구의 위치변화에 영향을 주는것이 무엇인가 하는데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로어부동사는 보통 문장의 술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시칭을 표현하는 시간의 의미로 쓰이지만 그밖에도 원인이나 양보, 조건과 같은 시간외적인 의미로도 자주 쓰이고있다.

례: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я пошел в школу. (시간)

(새책을 다 읽고 나는 학교로 떠났다.)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я смог написать интересное сочинение.(원인)

(새책을 읽었으므로 나는 작문을 재미있게 지을수 있었다.)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я не нашел ничего интересного.(양보)

(새책을 다 읽었지만 나는 재미있는것은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었다.)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я могу написать интересное сочинение.(조건)

(새책을 다 읽으면 나는 작문을 재미있게 지을수 있을것이다.)

이 경우에 부동사구가 주제부로 되면서 문장의 앞에 놓이는 구조에서는 부동사구부터 번역하면서 해당하는 의미를 살려 우리 말에서도 주제부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문제 될것이 없다.

그러나 부동사구가 설명부로 되면서 술어의 뒤에 놓인다면 문장의 통신적의미에 맞게 번역도 달리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부동사구의 위치도 자의적인것이 아니라 문장의 통신적의미에 맞게 정해지게 되기때문이다.

부동사구가 설명부로서 술어의 뒤에 놓인 로어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술어가 포함된 기본문장을 먼저 번역하고 그다음에 부동사구를 번역하는 방법을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에 시간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동사구가 있는 로어문장의 술어는 일반적으로 우리 말의 주어로 처리할수 있다. 다만 동시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미완료태부동사인 경우에는 술어를 먼저 번역하면서 그것을 부동사처럼 번역하면 된다. 그리고 양보와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부동사구가 있는 문장들에서도 술어를 먼저 번역하면서 그것을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어로 처리할수 있다.

례: Я пошел в школу,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내가 학교로 떠난것은 새책을 다 읽은 다음이었다.)

Я шел в школу, читая новую книгу.

(나는 학교로 가면서 새책을 읽었다.)

Я смог написать интересное сочинение,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내가 작문을 재미있게 지을수 있던것은 새책을 읽었기때문이었다.)

Я не нашел ничего интересного,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나는 재미있는것을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었지만 새책을 다 읽었다.)

Я могу написать интересное сочинение, прочитав новую книгу.

(내가 작문을 재미있게 짓자면 새책을 다 읽어야 한다.)

부동사구의 처리문제는 로씨야신문기사글을 비롯한 여러 문체의 본문번역에서 많이 제기되고있다. 그러므로 로어교육에서는 부동사를 문장의 통신적성분화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아무때나 부동사구부터 먼저 번역하는 편향을 없애고 본문속에서 문장이 나타내는 통신적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에서 번역을 할수 있게 될것이다. 실제로 다음의 문장들에 대한 번역을 들수 있다.

① Страны ОПЕК, пытаясь поднять цены, сократили добычу нефти.

② Страны ОПЕК сократили добычу нефти, пытаясь поднять цены.

첫 문장에서는 원유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를 밝히는것이 통신적 목적이라면 둘째 문장의 통신적목적은 원유생산을 줄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것이다. 따라서 부동사구부터 번역하여 《석유수출국가기구회원국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원유생산을

줄였다.》라고 한다면 첫 문장의 통신적의미는 정확히 전달할수 있지만 둘째 문장의 통신적의미는 충분히 전달할수 없게 된다.

둘째 문장에서 설명부로 되는 로어부동사구를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는 본문속에서 이 문장이 나타내는 통신적의미를 고려하여 우리 말의 설명부로 처리할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 문장앞에 세계적인 원유가격이 위협수치아래로 떨어져 원유수출국들이 타격을 받고있다는것을 서술한 문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다음에 오는 이 문장은 《석유수출국가기구성원국들은 원유생산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올리려고 하였다.》라고 번역하는것이 합리적인것이다.

다음의 문장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번역처리할수 있다.

Игорь Иван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только в заседании совместного постоян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я—НАТО, проигнорировав заседание 46—ти с участием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бывш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и стран—участниц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이고리 이와노브는 로씨야—나토공동상임리사회회의에만 참가함으로써 이전 가맹공화국들과 와르샤와조약기구참가국들의 외무상들이 참가하는 46개국회의는 무시해버렸다.)

부동사구번역에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문제는 로어종속복합문의 진술부분들에 대한 번역처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로어종속복합문에도 부문이 주문의 앞이나 뒤에 선택적으로 놓일수 있는 류형들이 있다. 이러한 종속복합문들에서 부문이 어디에 놓이는가 하는것도 역시 문장의 통신적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부문이 주문의 뒤에 놓인다는것은 결국 주문이 주제부로 되고 부문이 설명부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부문부터 번역하게 되면 부문을 주문의 앞에 놓은 문장이나 뒤에 놓은 문장에 대한 번역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될것이며 통신적의미가 정확히 전달될수 없게 될것이다.

레: Флорентийский саммит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ТО проходит в закрытом режиме, хотя не секрет, что главный вопрос – о собственно европейских сил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д эгидой ЕС.

이 문장에서 양보부문은 주문의 뒤에 놓여있다. 부문부터 번역하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한다면 《비록 기본문제가 유럽동맹의 비호를 받는 유럽자체의 안전무력에 관한 문제라는것이 비밀이 아니지만 피렌체나토외무상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있다.》라고 번역된다.

이렇게 되면 번역문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것을 새롭게 알려주는것을 통신적목적으로 하는 문장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적의미를 표현하자면 로어문장이 《Хотя не секрет, что главный вопрос – о собственно европейских сил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д эгидой ЕС, флорентийский саммит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ТО проходит в закрытом режиме.》라고 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로어문장의 통신적목적이 달라지게 된다. 그것은 본래의 로어문장은 회의에서 토의되는 기본문제가 유럽동맹의 비호를 받는 유럽자체의 안전무력창설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밝히는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이다. 본래의 로어문장을 통신적목적에 맞게 번역하려면 《비록 피렌체나토외무상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있지만 기본문제가 유럽동맹의

비호를 받는 유럽자체의 안전무력에 관한 문제라는것은 비밀이 아니다.》또는 《피렌제나토 의무상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기본문제가 유럽동맹의 비호를 받는 유럽자체의 안전무력에 대한 문제라는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번역방법은 목적부문이나 조건부문, 시간부문 등 통신적목적에 따라 주문의 앞이나 뒤에 선택적으로 놓일수 있는 부문을 가진 다른 종속복합문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례: По другой версии, евросилы придумал сам Вашингтон, чтобы заставить скардную Европу вкладывать больше средств в совместную оборону.

(다른 설에 의하면 유럽무력을 고안해낸것은 다름아닌 미국인데 그것은 린색한 유럽으로 하여금 공동방위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 같이 로조번역에서는 로어원문에서 문장이 나타내는 통신적의미를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둘째로, 번역에서 로어어휘적수단들의 의미를 통신적목적에 맞게 정확히 살리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의 의미를 잘 살려주어야 한다.

로어의 조사는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문장이나 개별적단어들에 각이한 의미적뜻빛갈을 주는 보조품사의 하나이다. 조사는 우리 말에 없는 품사이므로 그것을 번역할 때에는 여러가지 어휘적수단들을 리용해야 한다. 우리 말에는 로어조사의 의미를 표현할수 있는 어휘적수단들이 아주 풍부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표현수단들을 로조대역사전들에 다 밝혀주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사가 리용된 로어문장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 사전에 오른 제한된 표현들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다나니 본문의 논리적련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실례로 조사 **ведь**를 들수 있다. 《로조대사전》(외국문도서출판사, 주체95(2006))에 의하면 **ведь**는 가정, 확정, 질문 등을 강조하는 조사로서 우리 말의 《정말, 과연, ...인가》에 해당된다고 써여있다.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고있다.

Да ведь это Ирина. (이 녀자가 정말 이리나가 아닌가.)

Но ведь это правда.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 아닌가.)

У тебя ведь хорошая память, правда? (그러나 너의 기억력이 좋지 않니, 그렇지?)

사전의 설명과 레문들을 보면 조사 **ведь**의 기본통신적의미가 무엇인지 명백치 않으며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다나니 이 조사가 들어간 문장을 사전에 있는대로 《정말, 과연, ...인가》로 번역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번역문의 논리적련계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고있다.

조사 **ведь**가 들어간 로어문장들의 쓰임을 본문속에서 분석한데 의하면 이 조사의 기본통신적의미는 앞에서 이야기된 내용에 대한 론증, 론거의 의미이다. 다시말하여 앞에서 일정한 주장을 제기하고 뒤에서 그 원인이나 근거를 밝힐 때 이 조사를 리용하고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에서 든 사전의 실례들을 분석해볼수 있다.

문장 《Да ведь это Ирина.》는 앞에서 일정한 사건이나 문제가 화제에 올랐는데 그

것은 다름아닌 이리나라는 여자때문에 발생한것이라는것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그녀자는 이리나니까; 그 녀자가 바로 이리나란 말이야; 그 녀자야 이리나가 아닌가.》 등으로 번역할수 있는것이다.

문장 《Ведь это правда.》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한것이 사실이기때문에 그에 대해 반신반의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으므로 《이건 사실이니까; 이건 사실이란 말이야; 이거야 사실이 아닌가.》 등으로 번역할수 있다.

이것은 조사 ведь가 리용된 로씨야신문기사본문들을 분석해보면 더 잘 알수 있다.

례: Тем не менее заявления главного санитарного врача, не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ую противоречивость, все же вызвали переполох в пивоваренной индустрии. Ведь в случае отнесения пива к алкогольным напиткам пивоварам придется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через акцизные склады.

(하지만 위생방역소장이 발표한 담화는 일정한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공업부문에서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맥주를 알콜음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맥주생산자들이 간접세를 물고 자기들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로어조사 ведь가 들어간 문장을 우리 말로 번역할 때에는 원인이나 리유, 근거 등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표현수단들가운데서 해당 문맥에 맞는것을 선택하여 쓰도록 해야 한다. 원인을 밝힌다고 하여 늘 《...때문이다》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것이다》, 《...아닌가》 등으로 번역하면 본문의 론리적연계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일것이다.

례: Во-вторых, ракетные удары по Ираку на фоне изоляции этой страны тоже сделали свое дело. Ведь Ирак добывает 100-120 млн. тонн нефти в год. (둘째로, 이라크를 봉쇄한 조건에서 이 나라에 대한 미싸일공격을 진행한것도 역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이라크가 연간 1억~1억 2천만t의 원유를 생산하기때문이다. / 이라크는 연간 1억~1억 2천만t의 원유를 생산하는것이다. / 이라크는 연간 1억~1억 2천만t의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다.)

중요한것은 조사 ведь의 기본통신적의미가 론증, 론거의 의미라는것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우리 말 표현을 적중하게 찾아쓰는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로어조사 разве가 들어간 문장번역에서도 제기된다.

《로조대사전》에서는 이 조사의 대역을 《과연 ...일가?, 정말 ...일가?, 참말 ...인가?》라고 주고있다. 그리고 《Разве он уже пришёл?》(참말 그가 벌써 왔어요?)이라는 실례를 들고있다.

이것을 보아서 이 조사의 기본통신적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할수 없으므로 사실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물음의 의미를 가지고있는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Разве он уже пришёл?》이라는 문장을 그가 벌써 왔는가를 확인하는 문장으로 리해하고 번역도 그렇게 하고있다.

그러나 조사 разве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의 의미로 쓰이는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된 내용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례: Я учительница в деревенской школе. Но у меня есть корова, которая дает ведро молока утром и ведро вечером. На рынке в городе литр стоит 5 рублей,

но чтобы доехать до города, мне нужно потратить 50! Так еще и день провести на ногах, торгуя. Разве не обидно?

(난 농촌마을학교 교원이예요. 하지만 나에겐 젖소가 있어요. 우유를 아침에도 한 바께쓰, 저녁에도 한바께쓰 짬답니다. 시내시장에서 우유 한L에 5Rbl하지만 시내 까지 나가는데 50Rbl이나 써야 하니. 그것도 온종일 서서 판매해야 합니다. 이게 분하지 않은가 말이에요?)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 разве가 들어간 문장은 단순한 물음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 조사를 쓸 때 속으로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부정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전반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정의 의미가 살아나게 번역을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번역문장은 수사학적물음형식으로 처리할수도 있고 서술문형식으로 처리할수도 있다.

례: Разве кто-нибудь будет сейчас сомневаться.

(지금에 와서 누구든 의심할 사람이 있겠는가! / 지금에 와서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 разве는 불만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물음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 неужели와 본질적으로 차이나는 조사이므로 번역에서 정확히 구별해주어야 한다.

례: Неужели так сложн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чиновникам организовать людей?!

(지방자치기관관리들이 사람들을 조직동원하는것이 정말 그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번역에서 원문의 통신적목적에 맞게 로어어휘적수단들의 의미를 정확히 살리는데서는 조사와 함께 일부 굳어진 표현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제기된다. 실례로 при этом, в свою очередь와 같은 표현들을 들수 있다.

사전들에서 при этом은 《이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그우에, 뿐만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등으로 대역을 제시하고있다. 이것은 시간이나 조건, 정황, 양보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 при의 의미에 따른것이지만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하여 제시한 대역이 아니므로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서는 번역문의 논리적연계를 보장하고 원문의 통신적의미를 충분히 살려줄수가 없다.

그러므로 при этом이 리용된 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우리 말 표현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 어떤 말을 하는 정황과 관련된 문맥이라면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등으로, 일정한 행동과 관련된 정황이나 조건에 대하여 서술하는 문맥이라면 《이 경우에, 이때, 이런 조건에서, 그렇게 하면서》등으로 그리고 양보적인 정황과 관련된 문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지만》등으로 번역해야 하는것이다.

례: Секретарь СБ Сергей Иванов в кулуарах сессии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Договора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Минске вчера прямо заявил, что если «Талибан» усилит давление на союзников РФ, и в частности на Таджикистан и Киргизию, то «я не исключаю, что могут быть предприняты и какие-то военные меры». При этом Сергей Иван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еще д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агрессии должны быть проработаны условия, в том числе юридические, для пребывания россий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 — участниц ДКБ.

(안전리사회서기장 쉼르게이 이와노브는 어제 민스크에서 있는 집단안전조약기구
성원국회의의 비공식석상에서 만일 탈리반이 따쥐끼스판과 끼르키즈를 비롯한 로
씨야련방의 동맹국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다면 《나는 그 어떤 군사적조치들도 취
해질수 있다는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내놓고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쉼르게이 이
와노브는 침략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벌써 집단안전조약기구성원국들의 령토에 로
씨야군부대들을 주둔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 및 기타 조건들이 마련되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Вам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декларацию в налоговую инспекцию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ри этом не важно, получен доход в денежной или в натуральной
форме, в рублях или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в форме оплаты труда или в виде
материаль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благ.

(당신들은 해당 거주지의 세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입금을 현
금으로 받은것인가 현물로 받은것인가, 루블로 받은것인가 외화로 받은것인가, 로
동보수형태로 받은것인가 물질적 및 사회적혜택형태로 받은것인가 하는것은 중요
하지 않다.)

로씨야신문기사글들에서 자주 볼수 있는 в свою очередь도 번역처리를 잘해야 할 표
현이다.

이 표현은 앞에서 그 누가 무슨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나 대응조치
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에 쓰는것으로서 사전들에 《…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권
으로, 자기는 또 자기대로》라고 대역이 주어져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나타내는 기본의미
가 무엇인지 모르고 번역에서 사전의 대역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다나니 번역문이 우리 말
답지도 못하고 본문의 논리적관계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표
현에 대한 번역은 《한편, 그런데, 그러자》, 《그(들)대로》, 《…도 역시(또한)》, 《…에 대한 대
답으로》, 《…에 …으로 대답하다》 등으로 처리하는것이 본문의 논리적관계를 보장하고 통
신적의미를 살리는데서 합리적이다.

레: Как заявил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Сегодня»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й военной миссии
генерал Владимир Логинов, демилитаризация в Косово проведена
формально, этн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не решены, и вообще неизвестно, на
сколько все это растянется. Натовц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прекают нас Чечней,
где уж мы, похоже, надолго застряли.

(로씨야군사사절단 단장 올라지미르 로기노브장령이 《쉴고드냐》신문기자에게 이야
기한것처럼 꼬소보에서는 무장해제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민족문제가 해결되지 않
았으며 따라서 이 모든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는지 전혀 알수 없다고 한다. 한
편 나토성원국들은 그들대로 우리가 체르냐에 장기적으로 틀고있었것 같다고 비난
하고있다.)

В—третьих, закрытие корпорацией «Шелл» крупнейшего в Нигерии
нефтеналивного терминала из—за беспорядков, устраиваемых местным
населением. Нигери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оизводит более 100 млн. тонн

нефти в год.

(셋째로, 현지주민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하여 《셸》회사가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큰 원유항을 막아버린것이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도 역시 연간 1억t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있다.)

3. 결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통역, 번역을 비롯한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논문은 학생들의 로조번역실기능력을 키워주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번역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번역에 작용하는 조선어와 로어의 언어적요인들을 서술하고 그러한 요인들의 작용을 고려하여 번역문의 논리의미적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였다.

논문에서 제기하고 해명한 문제들은 로조번역실기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리론실천적연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실지 교수사업과정에 부딪친 문제점들을 밝힌것으로 하여 실천적측면에서 로어교원들과 학습자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교육사업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을 높은 번역실천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번역, 로조번역